

자동차

현대/기아차, 거침없는 미국 인센티브 감소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454-4866
Joonsung.kim@meritz.co.kr

현대/기아차, 산업 내 차별화되는 인센티브 축소 추이 지속

산업 평균 \$3,911 (+4% YoY, 이하 YoY)이었으며, Sedan \$3,258 (-8%), SUV \$4,170 (+8%)을 기록.

현대차 \$2,737 (-7%), Sedan \$2,595 (-11%), SUV \$2,479 (-22%)

기아차 \$3,534 (-18%), Sedan \$3,410 (-15%), SUV \$3,701 (-22%)

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Sedan은 재고 감축효과로 인센티브가 줄고 있고,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UV는 상승세. 반면, 현대/기아차는 Sedan/SUV 모두에서 재고 감축 및 판매증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이고 있음. 특히 현대차는 차 값이 높은 SUV 평균 인센티브가 Sedan 평균보다 낮은 점이 인상적.

현대차 7월 인센티브 \$2,737 (-7%)

지난 9월 신형 싼타페를 통해 신차 Cycle 개시 이후, 추세적 인센티브 감소세 기록 중 (11개월 중 10개월).

싼타페 대당 평균 인센티브는 \$2,051으로 전년동월 \$3,919 대비 -48% 감소. 판매가 시작된 쉐리세이드, 대당 평균 \$1,338 지급 (경쟁모델 동향: Ford Explorer \$5,840, Chevrolet Traverse \$5,009, Nissan Pathfinder \$5,668).

기아차 7월 인센티브 \$3,534 (-18%)

10개월 연속 YoY 감소. 타이트한 재고 관리 지속되며, Sedan/SUV 모두 인센티브 감소 실현.

노후 모델들 또한 재고 감소 기조 속, 인센티브 감소세. K5 -6%, 스포티지 -15%, 쏘렌토 -11%. 지난 3월 판매가 본격화된 텔루라이드의 7월 평균 인센티브는 \$2,624로 판매 첫 달 지급했던 \$2,990보다 감소.

대부분의 미국/일본 경쟁업체 인센티브 상승세

주요 브랜드 동향: Toyota +3%, Honda +11%, Nissan +7%, GM +6%, Ford +4%, FCA +14%, VW -4%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